

교회의 살아 있는 전통: 성전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가톨릭 신자들은 성모의 원죄 없는 잉태와 성모 승천을 믿을 교리로 따르고 전례 안에서 대축일로 기념한다. 그러나 성경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교리이다. 또한 우리는 성부와 성자께는 물론이요 천주 성령께도 기도를 드리지만, 그 근거 역시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다. 이처럼 가톨릭 교회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도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여러 전통들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이를 ‘성전(聖傳, Sacra Traditio, Holy Tradition)’, 즉 ‘거룩한 전통’이라고 부른다.

신명기 32장 7절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알려 주리라. 노인들에게 물어보아라. 말해 주리라.” 말씀처럼 성전은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위탁하신 계시이다. 교회의 초창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과 실천적 관행을 교회 공동체는 충실히 보전하며 널리 선포하여 왔다. 그 이유는 역사의 한순간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접하게 된 계시를 시공을 초월하여 인류에게 전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6세기 교회 개혁가들은 당시 그들의 눈에 인간적인 전통들을 거부하고, 성경만이 계시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가톨릭교회는 성경 자체가 모든 계시를 다 간직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성경은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그 전통을 이어가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따라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그 공동체의 전통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계시현상은 이렇게 말한다. “성전으로 교회는 성경의 온전한 정경을 인식하게 되었고 또한 성전으로 성경은 한결 더 깊이 이해되고 교회 안에서 그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성전과 성경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상통한다. 이 둘은 동일한 신적 원천에서 솟아 나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를 이루며 같은 목적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성전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성경의 기록이 과거의 한 사건을 단순히 객관적으로 수집한 수준이 아닌, 현 시대에 살아 숨쉬는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현 시대에 맞게 재해석 할 수 있는 성전의 힘이다. 그리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전해 받은 전통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교회의 일원이요 주체가 된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알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 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요한 21,25). [외침, 2015년 8월호(수원교구 복음화국 발행)]

❖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 윤안나/ 황애다/ 원정은 카타리나/성낙순 요안나(건강)
 - /잔 페리/백정심 막달레나.전기레 베레나(건강)
 - 김 미나미 로사/우순옥 소피아/김옥륜 세실리아---(건강)
 - 추소연 세실리아/엄 안드레아/서향자 글라라(건강)
 - 김초지 마리아/김미숙 모니카/최기소 바오로(건강)
 - 황순이 마리아/안병목 그레고리오/최이주 베아따(건강)
 - 최순범 사비나/김숙자 수산나/고희석-/김용욱 세레나/(건강)
- 본당주보에 공지하여 기도를 부탁하실 경우, 구역장님을 통하여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사 지향 (미사신청 ☎ 박 울리아 990-6531, 최 클라라 821-9354)

종류	지향	봉헌자	종류	지향	봉헌자
연	영혼을 위하여	울리아노가정	생	지 살로메 생일 감사미사	성령기도회
연	김종훈 요한의 영혼을 위하여	김화선 아녜스	생	장선영 스킨스타카의 평화와 건강을 위하여	박재래 마리아
연	Linda Kavangh 영혼을 위하여	박재래 마리아	연	장성식 미카엘의 영혼을 위하여	연령회

자	전 레 력	미사 시간	지 난 주 일	
10월27일(화)	연중 제30주간 화요일	오후 7 : 30	교 무 금 주일헌금	\$ 3,765.00 \$ 997.00
10월28일(수)	성시몬과 성유다(타대오)사도축일	미사 없음	토요 특전 교구 원 캠페인	\$ 63.00 \$ 650.00 -
10월29일(목)	연중 제30주간 목요일	오후 7 : 30	성소후원금 사회 복지 후원금	\$ 242.00 \$ 101.00
10월30일(금)	연중 제30주간 금요일	오후 7 : 30	종교서적 및 성물판매 기타수입	\$ 48.00 \$ -
10월31일(토)	연중 제30주간 토요일	오후 7: 30	사제관 건축 합 계	\$ 2,000.00 \$ 7,818.00
11월1일(일)	모든 성인 대축일	오전 9 :00 오전 11:00	미사 참례	성인 명 학생 명

교무금 내신 분 <감사합니다!> 4~6 이광훈 4~10월 김용문 5~6월 김현준 7~8월 김상규 7월~10월 조영진 9~10월 이민석 류정임 김덕홍 지동순 9월 한은년 안기창 10월 김계숙 류승교 김에릭 김병준 이상일 오택기 11월 이재성 10월~12월 이정자 11~12월 장석자

(공동체 소식)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1구역(FE), 2구역(FO), 3구역(PC), 4구역(NH), 5구역(GF), 6구역(RC), 7구역(RT), 8구역(NC), 9구역(EG), 10구역(DW)

◆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1. 지속적인 전교를 합시다

◆ 예비신자 교리반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8시)

2. 봉성체(병자 영성체) 신청

◆ 주-신부님/ 셋째 주 -부제님 ◆ 박 율리아 전례부장 또는 사무실

3. 본당 신부님 Denver 성당 방문-일시 26일(월)-29일(목)까지

4. 10월 목주성월 각 단체들은 목주기도로 봉사해주세요

날짜	봉사자	지향	
25(일)	사목회	교회의 일치와 발전을 위하여	영광의신비
27(화)	평화의 모후	본당의 일치와 발전을 위하여	환희의신비
29(목)	정의의 모후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빛의 신비
30(금)	셋별의 모후	세계평화를 위하여	고통의신비

5. 성시간 및 성령찬미미사 ; 10월 30일(금) 저녁 7시 30분

◆ 매월 성시간을 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참여해주세요.

6. Daylight Saving Time -다음 주일(11월 1일)

◆ 오전 2시를 1시로 변경해주세요

7. 70's & 80's 디스코 댄스 파티

◆ 일시 : 11월 7일 저녁 7시~10시

◆ 참가비 : Pre ticket \$20 each, At the door \$30 each

◆ 간식제공, 베스트 의상상 추첨/ 서메리 916-271-3671

8. 위령의 날 묘지 미사 : 11월 7일(토) 10시 30분

◆ 장소 : 65가 묘원 :6700 21st ave Sacramento Slakey Chapel

◆ 차편이 필요하시는 분은 성당으로 10시까지 나오세요.

◆ 위령미사 신청은 전례부장, 사무실로 접수 바랍니다.

9. 성모 신심 미사 -11월 14일 (토) 10시 30분

◆ 미사 후에 안나회 요셉회 있습니다.

10. 정혜 엘리사벳 가을 음악회

◆ 깊어가는 가을 끝자락에 성가대에서 교우들과 친척/친구들을 모시고 작은 음악회를 갖습니다.

◆ 일시 11월 1일(일) 저녁 6시 장소 : 정혜 엘리사벳 성당

◆ 친교실에서 따뜻한 차와 간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1. 2016년도 달력광고

◆ 본당 달력에 광고하실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12. 본당 골프대회 수익금

◆ 본당 골프대회(10월 11일) 수익금 \$734을 연령회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3. 새크라멘토 교구 The One Campaign 모금 참여하기

지난주까지 The One Campaign 봉헌자는 총 97명입니다.

The One Campaign 봉헌금	총 누 계
(\$200) 장석자(\$150) 이정자(\$300)-	\$41,145.00

14. 성전 건립기금 및 목주기도 현황

지 난 주 봉 헌 금	총 누 계
-	\$65,634.21

지난주 목주기도 봉헌	총 누 계
4,410	280,158

15. 감사합니다!

◆ 이번주 점심봉사 : 성령기도회 보조 : 김도미/부제 지살로에 박재례/마리아

◆ 다음주 점심봉사 : 9구역 보조 : 신부님 김용문/요한

◆ 김바로 부제님(김나영)께서 한글학교에 \$100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 김양순 수산나 자매님께서 도서를 기증해주셨습니다.

모임 안내

ME 모임 : 25일(일) 9시미사후 Ecko Lake 산행

◆ 문의 : 김안셀모 김프란체스카 대표부부

● **연령회 모임** : 25일 교중미사후 12시 30분

◆ 장소: 성 마태오 방 점심제공

◆ 중요안건 토의가 있으니 연령회원 전원 참석 부탁드립니다.

● **구역장 모임** : 11월 6일(금) 7시 30분

● **도서관 봉사자 찾습니다.**-일요일 미사직후 12-1시 한 달에 한번 도와주실 분을 구합니다. 연락 전스텔라 자매 916-804-1403

주일 /한글학교

● **재능기부 하실분 모집합니다**

◆ 서예, 민속놀이, 사물놀이 동양화 고전무용 등등

연락처 : 오크리스티나 (한글학교 교장) (213)700-0051

● **주일/한글 학교 학부모모임** -11월 1일 주일 10시

◆ 많은 학부모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 이미경 애네스(530)906-0265 annleerp@gmail.com

오크리스티나 (한글학교 교장) (213)700-0051

전례 봉사	10월 25일	11월 1일	11월 8일	11월 15일
해 설	이혜련 (데레사)	김은선 (제노베파)	김은영 (폴리나)	임상일 (프란치스코)
1 독 서	안강순 (앤젤라)	이순자 (요안나)	이순자 (요안나)	원영일 (미카엘)
2 독 서	이서향(미카엘라)	양방림(베로니카)	양경림 (베로니카)	원혜리나 (헤레나)
복 사	양경민(안드레아) 류승교(바로)	김재열(스테파노) 이대원(베드로)	김민규(다미아노) 윤여훈(로마노)	윤성훈(가브리엘) 송돈희 (요셉)
/기도/청소	5GF~6RC	7RT~8NC	7RT~8NC	7RT~8NC
헌금 위원	이나숙 정의주	고공자 임그라시아	장석자 고원석	송돈희 임상일

(광고)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주보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

주보담당: 최원숙 클라라 ☎(916)821-9354 E-Mail:choiclara@inbox.com

<p>East WestTravel (동서여행사) 9527 Folsom Blvd.Suit #A Sacramento, CA 95827 김 지나 ☎ (916) 362-0260</p>	<p>· 용자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9299 E. Stockton Blvd. Ste.40 Elk Grove, CA 95624 Titan R. E. Services 서주연(마리아) ☎ (916) 271-3671</p>	<p>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 Citrus Heights, CA 95621 장원석(바오로) ☎ (916) 729-1441 한국어(916) 230-6768</p>	<p>제인 안 변호사 파산법 전문 (, 사업빚, 모기지 등 각종 채무상담) U.C. Berkeley School of Law, JD 2005 De La Cruz Blvd.Ste 281 Santa Clara, CA 95050 ☎ (408) 982-0999</p>
<p>서은미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8525 Madison Ave. #122 Fair Oaks, CA 95628 서은미(안나) ☎ (916) 860-3873</p>	<p>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 린(클라라) ☎ (916) 342-7072</p>	<p>Exigo ITSolutions 컴퓨터 수리 Laptop.Desktop. IT services 김동현 (미카엘) e-mail: support@exigoits.com web add.:www.exigoits.com ☎ (916) 287-1439</p>	<p>1.2.3AutoBody/정비 10170 Croydon Way #F Sacramento, CA 95827 이호영(호영베드로) ☎ (916) 366-0123</p>
<p>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 (916) 605-6974</p>	<p>도움이 필요하신 서류는 미리 예약을 하시고 주말날 성당에서도와드립니다 연 락:전비아 (916)548-7132 이플로렌시아(916)176-1834 사 회 복 지 부</p>	<p>ShoGun Sushi 7330 Fair Oaks Blvd., Carmichael, CA 95608 길성진 ☎(916)483-1224</p>	<p>Law Office of Daniel S. Lee 2720 Gateway Oaks Drive, Suite#140. Sac, Ca 95833 (직장상해법.상해보상.장애사회보상) 변호사: 이진아 (막달레나) danleelaw@gmail.com ☎(916)922-0107</p>
<p>최병엽공인회계사 Paul Choi&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 (916) 363-2345</p>	<p>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 95742 신영후(토마스) ☎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 (916) 361-2020 Fax(916) 361-0433</p>	<p>신세계 여행사 148 Grand Ave. Oakland, CA 94612 Raymond(베로니카) ☎ (510) 451-7487 688-0157</p>
<p>한국위성방송 한국방송(MBC, MBC Everyone,SBS, SBS Plus, YTN, CTS, EBS, Radio Korea, OBS, TBS,CBSBadoo)+ (Direc TV) "무 료 설 치" 권영일(프란치스코) ☎ (916) 370-5441</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상해/자동차/집/건강 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 (916) 362-3300 Cell (916) 475-3770</p>	<p>지도 (Creative Art Class) 서양화전공.오랜경험.성실히 (대상:5세~12학년) 4528 Jan Dr, Carmichael, CA 이완순 안나 ☎(916)396-6219</p>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 (916) 548-3278 (916) 362-3300</p>



정혜 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주임신부: 최승근(비 오) ☎ (916) 207-4806(C)
 본당부제: 김병준(바 오 로) ☎ (217) 352-2487(C)
 본당부제: 김상돈(도 미 닉) ☎ (916) 580-8519(C)
 사목회장: 김용문(요 한) ☎ (916) 903-6702(C)
 총무부장: 김재열(스테파노) ☎ (530) 771-7715(C)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 (916) 368-9204 Fax (916) 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예레미야서 31:7-9 제2독서 히브리서 5:1-6 복음 마르코 10:46-52

화답송 : 시편 126(125), 1-2ㄱㄴ, 2ㄷㄹ-3, 4-5, 6(◎ 3참조)



화답송

주님이 큰일을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이상적인 제자 바르티매오

이제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다 끝나가는 때에 오늘 복음에서 예수는 예리코라 불리는 도시에서 한 눈먼 거지를 치유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바르티매오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름이리기보다는 그가 티매오라는 사랑의 아들임을 가리킵니다. 시몬 바르요나에서 시몬은 이름이고 바르요나는 그가 요나라는 사랑의 아들임을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어쨌든 네 복음서에 등장하는 여러 소경들 가운데 이 사랑만이 호칭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중요한 인물임을 암시합니다.

예리코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광야생활을 마치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때 첫 번째로 정복한 성입니다. 이 성은 놀랍게도 군사들의 칼과 활이 아니라 사제들의 뿔 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함성으로 정복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소경 바르티매오 또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람들이 그를 말리려 해 보았지만 그의 열정적인 외침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리코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뿔 나팔과 함성을 질러댔듯이 바르티매오도 예수를 둘러싼 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예수께서 그를 보아줄 때까지 고향을 질러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나자렛 출신의 예수라 하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그는 다윗의 자손이라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알아봅니다.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에 관하여 들은 말씀만으로 예수의 정체를 알아차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참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고귀한 혈통에 대한 존경을 드러내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혹은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치유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능력이 후손들에게 유전되었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불렀을 리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나오기로 되어있는 메시아에 대한 신앙고백으로 봐야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예수께서 불렀을 때에 바르티매오가 겹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께 갔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에 기초하여 바르티매오의 행위가 죄를 벗어버림을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겹옷을 치워버리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그의 앞에 깔려 구걸 통의 역할을 했던 옷을 걷어차고 예수께 다가갔다는 말입니다. 부름 받은 제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아는 그물을 버렸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버렸습니다. 얼마 전 재산을 포기하는 대신 예수의 제자 됨을 포기하고 슬퍼하며 떠난 젊은 부자 청년과 달리 그는 전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께로 나아왔습니다. 예수를 부르는 호칭도 ‘스승님’으로 변합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간절히 눈의 치유를 원했을까요? 눈이 보이게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었던간에 막상 그가 눈을 뿔 때 선택한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예리코는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관문이 아니라 십자가 길의 시작점입니다. 결국 바르티매오가 선택한 것은 비록 그가 예상치 못했다 하더라도 제자로서 수난의 길을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이야기는 전형적인 치유 이야기의 구조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르티매오를 불렀고, 그는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것도 이제 환호하는 군중들에 둘러싸인 스승과 함께하는 찬란한 영광의 시간이 끝나고 하룻밤 새 예수와의 관계를 세 번이나 부정해야 하는 잔인한 십자가의 때가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말입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그 모진 시간들을 제자로서 끝까지 잘 견어낸 것 같습니다. 초대 교회가 그의 이름을 복음서에 보존해 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오늘 복음은 놀라운 치유 기적보다 바르티매오의 제자 됨됨이가 더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영덕 본당 함원식 이사야 신부

항상 당신과 함께

기도
 기도는
 돌밭에서도
 싹을
 틔우시나니, 주님

클레멘스 · 시인 / 김복태 사도 요한 · 화가



장종지

--	--	--